

다올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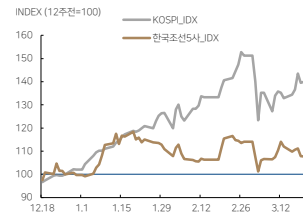
2026.03.22 [814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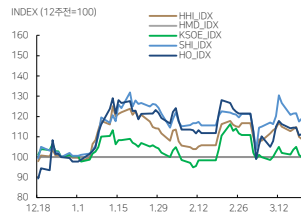
다올투자증권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Peer Group 주가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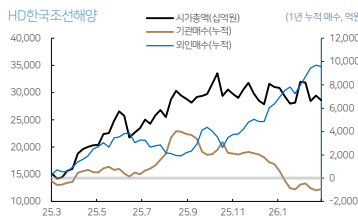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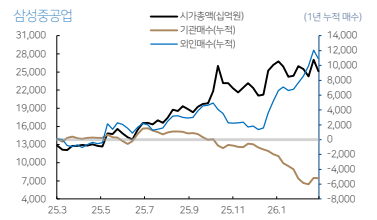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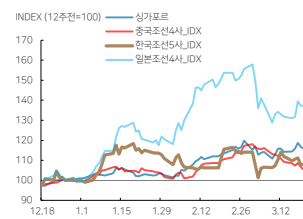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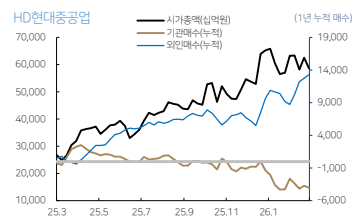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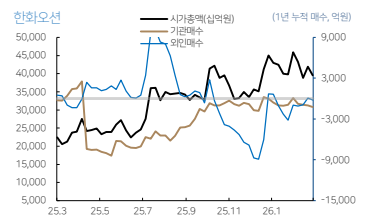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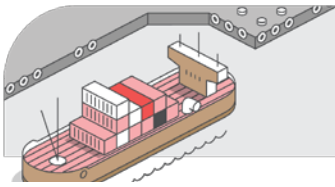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다올 선박

2026.03.22 [814호]

DAOL 다올투자증권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선, 전자공사 등)

▲ 삼성중공업, Purus Marine의 LNG선 1척 옵션 행사로 수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HD현대중공업, HMM으로부터 피더 컨테이너선 10척 수주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HD현대중공업, Hafnia의 MR PC선 4척 수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Eni, 6MTPA 신규 FLNG 투입처. 모잠비크와 남미 베네수엘라. 2개 추가 사업 진행 중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DH Shipbuilding→Unknown, TK(157k-DWT) 1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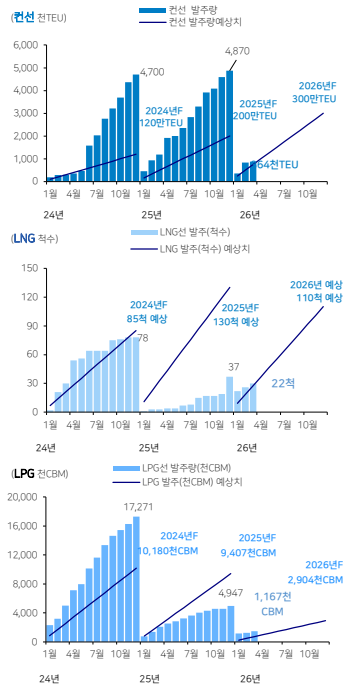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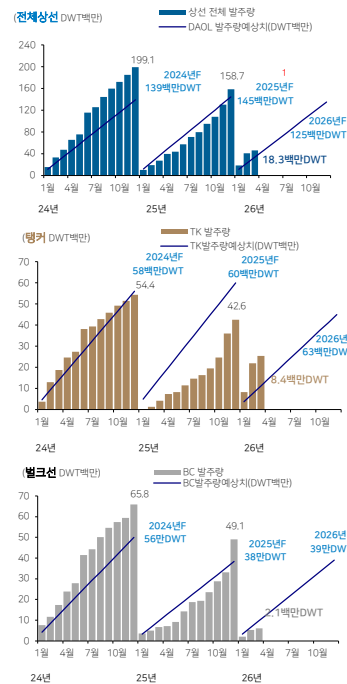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HD Hyundai (Medium)→Unknown(HMM), CONT(2,800-TEU) 10척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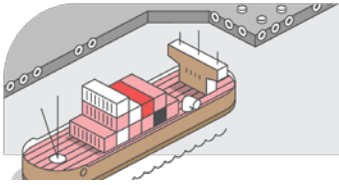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6년 03월 1주								
대한민국	HD Hyundai HI (HHI)	26.03.04	Unknown	Unknown	LNG	200k cu.m.	2029 4	
	HD Hyundai (Medium)	26.02.26	한국	KMTC	CONT	2K TEU	2027-2028 6	
	GSI Nansha	26.01.31	유럽	Yasa Shipping	TK	157k DWT	2028-2029 4	
	Hudong Zhonghua	26.02.27	아시아	Malaysia Int Shpg Co	LNG	174k cu.m.	2029-2030 2	
	Shanghai Waigaoqiao	26.03.02	유럽	Performance Shipping	TK	158k DWT	2028-2029 2	
중국		26.02.27	중국	BAL Container Line	CONT	11k TEU	2028-2029 2	
	Qingdao Beihai SB	26.02.06	유럽	Cape Shipping	TK	319k DWT	2029 1	
	CMHI (Shenzhen)	26.03.02	유럽	Asso Subsea	OFF-SUPP	0k LOA	2028 1	
	ZPMC Qidong Marine	26.01.24	중국	CCCC Haifeng WP	해양설치	#VALUE!	2028 1	
	Huanghai SB	26.01.01	유럽	Euroseas	CONT	3k TEU	2028 2	
		26.01.13	한국	HMM	CONT	2k TEU	2028-2029 5	
						3k TEU	2028-2029 7	
	COSCO HI (Qidong)	26.01.01	유럽	Knutsen NYK	TK	154k DWT	2027 1	
	Penglai Jinglu SY	26.02.04	유럽	MSC	CONT	12k TEU	2029 8	
	CMJL (Nanjing)	26.03.02	유럽	UECC	PCTC	3k Cars	2028 2	
중국	Jiangmen Hangtong	26.03.03	중국	COSL	OFF-SUPP	#VALUE!	2027 2	
	Hengli SB (Dalian)	26.02.26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TK	306k DWT	2029-2030 2	
		26.03.03	유럽	Unknown European	TK	306k DWT	2029-2030 2	
	Jiangxi Jiangxin SB	26.02.26	중국	Putuo Liheng Govt	OTHERS	0k LOA	2027 1	
	Nantong Strong Wind	26.02.26	아시아	OceanSTAR Marine	FP50	30k bopd	2028 1	
	2026년 03월 2주							
	대한민국	Samsung HI	26.03.10	Unknown	Unknown	TK	157k DWT	2028-2029 3
		HD Hyundai Samho	26.03.09	유럽	Unknown European	LPG	90k cu.m.	2028 2
			26.03.05	유럽	Arcadia Shipmgmt	TK	157k DWT	2029 2
	중국	CMHI (Jiangsu)	26.03.10	유럽	Jan De Nul Group	OTHERS	#VALUE!	2028 1
Jiangsu New YZJ		26.03.10	중국	JJ Shipping	CONT	2k TEU	2028-2029 4	
Zhoushan Changhong		26.02.01	유럽	Costamare Shipping	CONT	3k TEU	2028 4	
COSCO HI (Zhoushan)		26.03.09	유럽	Knutsen NYK	TK	154k DWT	2028 1	
Penglai Jinglu SY		26.02.01	유럽	Greenheart Mngt	CONT	3k TEU	2028 2	
Hengli SB (Dalian)		26.03.06	유럽	Unknown European	TK	306k DWT	2028 4	
New Jiangzhou SB		26.03.05	중국	Zhoushan Changhang	BULK	20k DWT	2027 2	
Panjin Dajin Off		26.02.25	유럽	Danaos Corp	BULK	211k DWT	2028 2	
CMJ (Yangzhou)		26.03.04	중국	Nanjing Yangyang	GASC	7k DWT	2028 3	
COEC Qingdao		26.03.09	중국	CNOOC Limited	FP50	#VALUE!	2029 1	
Jiangmen Taixing SB		26.03.12	중국	CREC Guangzhou	OFF-SUPP	1k GT	2027 1	
Jiangxi Hongtong HI		26.01.22	중국	Zhejiang Fugiang	BULK	20k DWT	2027 2	
				Zhoushan Direct Ship	BULK	18k DWT	2027 1	
				Wuhu Rongguang	CONT	1k TEU	2027 2	
				Wuhu Huayu Shpg	CONT	1k TEU	2027 2	
			Nanjing ChunYuan	CONT	1k TEU	2027 1		
			Hongtong Jiaxin	BULK	18k DWT	2027 1		
일본	Imabari SB (Imabari)	26.02.25	유럽	GSD Shipping	BULK	64k DWT	2029 1	
	Shimamami Shipyard	26.03.02	아시아	Uni-Asia Shpg (HK)	BULK	40k DWT	2028 1	
	Keihin Dock	26.01.01	Unknown	Unknown	OFF-기타	#VALUE!	2027 1	
2026년 03월 3주								
대한민국	DH Shipbuilding	26.03.16	Unknown	Unknown	TK	157k DWT	2029 1	
	HD Hyundai (Medium)	26.03.13	Unknown	Unknown	CONT	3k TEU	2027-2028 10	
중국	Qingdao Beihai SB	26.02.11	한국	Pan Ocean	BULK	211k DWT	2030 2	
		26.03.13	한국	Pan Ocean	BULK	211k DWT	2030 2	
중국	Jiangsu New YZJ	26.03.11	유럽	d'Amico Intl Shpg	PTK	50k DWT	2029 2	
	New Times SB	26.02.01	유럽	Dynamco Tankers Mgmt	TK	159k DWT	2030 2	
						299k DWT	2029 1	
	Jiangsu Runyang	25.12.01	중국	Hainan Zhongzheng	CONT	4k TEU	2027 1	
	CMJL (Nanjing)	26.03.12	중국	NASCO	BULK	64k DWT	2028 2	
	Chizhou Xinfeiyang	25.12.01	중국	Anhui Haiqing Shpg	CONT	2k TEU	2027 1	
	Jiangmen Suihang	26.01.01	Unknown	Unknown	OFF-기타		2027 2	
	Zhejiang Xinxinzhong	25.12.01	중국	Zhejiang Jiayue	PTK	12k DWT	2027 1	
	SOHO I&T SB	26.02.08	중국	Agricore Shipping	BULK	64k DWT	2028 2	
	Shandong Xinneng SB	26.03.14	중국	Dexinxiangyun Shpg	CONT	1k TEU	2027 2	
	Xiangshui Wanlong HI	26.01.01	중국	Unknown Chinese	BULK	211k DWT	2028 1	
	Zhoushan Yulong SY	26.03.01	중국	Zhongmei Ferry	FERRY		2027 2	
	HMMC	26.01.01	중국	Unknown Chinese	OTHERS	#VALUE!	2027 1	
	일본	Unknown Yard /Japan	26.03.12	Unknown	Seanergy Maritime	BULK	182k DWT	2029 1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치수 11주만에 반등, 중고선가치수 2주 연속 상승

신조선가치수 182.10p로 +0.14p 반등, 11주만의 반등이며 그동안 상승한 탱커와 LNG선 때문. 지난주에는 MR이 50백만달러로 +0.5백만달러 상승
중고선가치수는 203p로 2주 연속 1p 상승, 핸디벌크가 2주 연속 상승

▲ HD현대의 인도 타밀나두주 조선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 투투쿠디 지역에 약 6조원(4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대규모 조선소와 조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체화
투자액은 조선소 건설에 약 40억 달러(약 6조원), 방파제 등 주변 인프라에 약 6,400억원
생산 규모는 연간 최대 400만 총톤수(GT) 규모의 선박 건조 목표
위치는 인도 타밀나두주 투투쿠디의 '국립조선중공업단지(NSHIP)'
인도 정부의 해양개발기금(MDF) 및 주정부 보조금을 통해 사업비의 약 45% 이상을 충당할 가능성이 큼
지분 구조는 HD현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타밀나두 산업진흥공사(SIPCOT)와 MDF가 나머지 지분을 나누어 갖는 형태가 거론
밸류체인 구축: 약 3,000에이커 규모의 클러스터에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협력사들의 동반 진출이 기대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인센티브와 제철소 설립 유리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추가 논의를 위해 이달 중 방한할 예정이며
정기산 HD현대 회장이 올해 초 모디 총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전

▶ HD현대, 인도 타밀나두 주 조선소 투자 관련 보도 해명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 주에 40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하여 조선소를 건설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힘
다만, 지난해 12월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와 신규 조선소 설립 "촉진"을 위한 독점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
HD현대는 2025년 7월에도 Cochin Shipyard와 인도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3경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도를 세계 5대 조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 중
HD현대의 글로벌 전략은 생산 기지를 다각화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것이 핵심
HD현대의 글로벌 확장 현황 및 계획은
1) 아시아: 베트남 진출 및 지난해 9월 필리핀 조선소 가동 시작
2) 중동: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합작 조선소 운영 개시 예정
3) 남미: 페루 국영 SIMA Shipyard와 합정 공동 건조 착수
4) 북미: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기치 아래 미국 조선소와 공동 건조 추진
한편, HD현대중공업은 군산 조선소를 국내 조선사인 Ecopime Marine Pacific에 매각한다고 발표

▲ 삼성중공업 Pipe Robofab 개소 및 자동화 추진

삼성중공업은 조선업계 최초의 파이프 스톱 자동화 제조 시설인 'Pipe Robofab'을 개소
해당 시설은 경상남도 함안 칠서 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
개소식은 삼성중공업 최성만 부회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Eni, MISC 등 주요 선주사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
Pipe Robofab은 약 6,500평방미터 규모로, 연간 약 100,000개의 파이프 스톱을 생산
Vision AI 기술이 지원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설계부터 물류, 정밀 가공, 측정, 정렬, 용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함
지난해 10월 출시된 엔지니어링 데이터 허브(S-EDH) 시스템과 연동되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선박의 '협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 파이프 스톱 제조의 리드 타임 단축이 가능
또한 일관된 품질 유지와 제조 현장의 안전성 향상을 기대
핵심 제조 공정에 AI와 자동화 기술을 통합하여 스마트 야드 구축을 본격화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당사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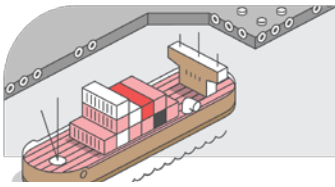
▶ 그린십

▲ 일본3사는 암모니아 벙커링선 설계 협력

일본의 Sumitomo, K Line, NYK Bulkship Asia가 싱가포르에 투입될 암모니아 벙커링선 설계를 위해 협력
3사는 암모니아 벙커링선인 'N-ABV'의 FEED 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
이번 FEED 연구는 선박의 기본 설계, 기술 사양, 안전 및 운영 요구사항과 싱가포르 시장에 최적화된 소유 모델 구축을 포함
해당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과 에너지시장청(EMA)이 주도하는 암모니아 가치 사슬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원
싱가포르는 에너지 전환 및 해상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발전 및 선박 연료용 저탄소/무탄소 암모니아 도입을 추진 중
작년 10월 MPA와 EMA는 주류 섬의 발전 및 벙커링 솔루션 제공을 위해 Keppel이 이끄는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Sumitomo가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 중
Sumitomo는 MPA로부터 연구 혁신 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기업으로, 벙커링 제안의 기술적·상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FEED 연구를 주도
올해 1번째 암모니아 D/F 신조선이 등장할 예정이며, 미래 벙커링 운영을 위한 선박 간(STS) 암모니아 하역 테스트가 여러 항구에서 진행
다만 벙커링용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

▲ WinGD는 그린 암모니아가 VLSFO 및 LNG와 가격 경쟁 가능할 것으로 분석

엔진 제조사 WinGD와 연료 공급사 Envision의 공동 연구 결과, 그린 암모니아가 현재 가격 수준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 하에서 VLSFO 및 LNG와 경쟁 가능할 것으로 분석
별도의 보조금 없이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및 IMO의 Net-Zero Framework 패널티가 적용되면 VLSFO 및 LNG와의 가격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분석
WinGD의 'Renewable Fuel Economics' 보고서는 중국-호주 노선을 운항하는 16k-TEU 컨테이너선과 210k-DWT 벌크선의 운영 비용을
실질적인 수명 주기 배출 계수와 추정 벙커링 가격을 토대로 분석
현재 그린 암모니아 운항 비용은 VLSFO 대비 3배 수준이나,
2029년부터 2036년 사이에는 VLSFO보다, 2029년부터 2050년 사이에는 LNG보다 운영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
Envision은 내몽골 지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통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제조 중
1번째 단계 프로젝트에서 연간 약 320k-톤을 생산하며 올해 4분기부터 수출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1.5 MTPA 규모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
WinGD는 올해 상반기 Exmar LPG에 인도 예정인 46k-CBM LPG/암모니아 운반선에 1번째 암모니아 D/F 엔진을 탑재하여 가동할 예정
이후 중국에서 건조되는 210k-DWT 벌크선 시리즈에도 대규모 그린 암모니아 엔진을 공급할 계획
e-LNG와 그린 메탄올은 현재 그린 암모니아보다 생산 비용이 현저히 높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
2050년경 그린 암모니아는 LNG 대비 수명 주기 운영 비용이 5%에서 6%가량 낮아져, 가장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
Envision은 AI 기반 최적화 기술을 통해 재생 에너지 수확과 연료 생산을 조화시켜, 그린 암모니아가 VLSFO 및 LNG와 경쟁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
WinGD는 실제 연료 가격과 엔진 성능 데이터를 통해 그린 연료가 선박 운영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유효한 옵션임을 입증



▶ LNGc

▲ 삼성중공업, Purus Marine의 LNG선 1척 옵션 행사로 수주

2029년 4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52백만달러
이번 발주로 Purus Marine의 LNG선 선대는 최소 10척으로 확대됨
Purus Marine은 작년 삼성중공업에 180k-CBM LNG선 3척을 발주. 이 중 1척은 JERA와 80,000달러/일 수주에 장기 옵션 계약 체결
동사는 최근 중국 Nantong CIMC SOE에 18.9k-CBM LNG 벙커링선 2척을 발주하며 해상 섹터 진입
삼성중공업은 올해 현재까지 LNG선 4척, 메탄올반선 2척, 컨테이너선 2척, COT 4척 등 총 12척, 2.4십억달러의 수주목표 13.9십억달러의 17%를 달성
☞ 신조선가가 252백만달러로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99원/달러입니다.
☞ 원달러 환율 1,450원/달러에서는 260백만달러 수준입니다.

▲ Shell LNG 수요 전망: 422MTPA → 2040년 650~710MTPA로 최소 +54% 성장 전망

Shell은 전 세계 LNG 수요가 2025년 422 MTPA에서 2040년까지 650~710 MTPA로 약 54~68% 증가 예측함
2050년까지 장기 수요는 최소 610~780 MTPA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수요 성장의 핵심 동력은 아시아 신흥 시장이며, 2025년 기준 전체 LNG 수입량의 약 65%가 아시아로 향함
아시아 시장이 2040년까지 신규 가스 수요 성장의 약 70%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과 일본의 수요는 2030년대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인정
에너지 전환기 내 LNG의 역할 LNG는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며,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해상 1차 에너지 구역에서 LNG의 비중은 현재 16%에서 2050년 약 30%까지 두 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
시장 상황 및 가격 변동성 LNG 업계는 1번째 투자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으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40% 확장될 것으로 보임 공급 과잉 시기가 도래하며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
다만 프로젝트 지연, 지정학적 불확실성,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정확한 수급 균형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Shell은 10개국 이상의 공급원과 30개국 이상의 판매처를 바탕으로 매년 4~5%의 LNG 판매 성장을 기대
2029년까지 전체 물량의 약 80%가 장기 계약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2050년 수요 전망치의 하단에 도달하더라도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와 2040년대에 추가적인 공급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메탄 배출량을 2016년 대비 2025년까지 78%(31,000톤) 감축했으며, 2030년까지 '제로 메탄 배출 집약도' 달성을 추진

▲ 중동 분쟁 심화로 인한 유럽 가스 가격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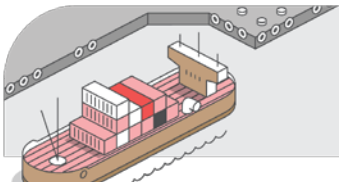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가스전인 이란의 South Pars 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이 카타르 내 인프라에 보복 타격을 가하며 긴장이 고조
이란의 QatarEnergy LNG 시설 공격으로 유럽 천연가스 지표인 TTF 가격이 목표일 오전 +25% 급등하며 MWh당 68유로(76.8달러)를 기록
TTF 가격은 지난 한 주 동안 +67%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40% 이상 폭등
영국 가스 가격 또한 +24% 상승하여 therm당 172펜스(2.3달러)에 도달
국영 QatarEnergy는 Ras Laffan Industrial City(RLIC) 시설이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액체 연료 전환 시설인 Pearl GTL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
목요일 추가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여러 LNG 시설에서 대형 화재와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
이란 뉴스 매체는 카타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 및 가스 단지도 공격 위협 아래 있다고 보도
Brent유 가격이 배럴당 114달러로 약 +6% 상승한 것에 비해, 세계 3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위기로 인해 가스 시장의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남
ING는 이란의 주변국 에너지 자산 공격이 가스 시장에 더 큰 우려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피해 복구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2026년 내 Ras Laffan 재가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
이번 사태로 인해 LNG 공급 측면에서 "5년의 퇴보"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

▽ QatarEnergy: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LNG 시설 복구에 최대 5년 소요

카타르 Ras Laffan Industrial City(RLIC) 내 LNG 시설이 이번 주 미사일 공격을 받아 복구에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이번 공격으로 카타르 전체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실, 연간 약 200억달러의 수익 감소가 우려
ExxonMobil과 합작 투자로 운영 중인 12.8MTPA 규모의 Train 4 및 Train 6 액화 train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음
QatarEnergy 최고경영자 Saad Sherida Al-Kaabi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으로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며, ...
... 일부 장기 계약에 대해 최대 5년간 Force Majeure(불가항력)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이번 공격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되었으며, 세계 최대 비수반 천연가스전인 North Field의 가스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가 타격받은 점이 강조
Rystad Energy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가스 시장의 공급 유연성 기대감을 꺾고 인프라 리스크와 타이탄한 수급 균형을 초래하는 '방향성 전환'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Kpler는 2026년 카타르의 LNG 수출량이 50.6MTPA까지 감소하여 글로벌 공급량이 약 6%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
Pearl GTL 시설의 train 중 하나도 심각하게 파손되어 최소 1년 이상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Shell은 현재 피해 규모를 조사 중
LNG 외에도 컨테이너(24%), LPG(13%), 헬륨(14%), 나프타(6%), 황(6%)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연간 수출 감소가 예상
이란 매체가 지목했던 5대 공격 대상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Samref 정유소에도 드론 공격이 발생하는 등 여내 에너지 시설의 취약성이 고조

▽ QatarEnergy 시설 피해 및 생산 중단. 선단의 20%가 공급으로 쏟아짐

이스라엘의 이란 South Pars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카타르 에너지 인프라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
세계 최대 가스 액화 시설인 Pearl GTL과 14개의 liquefaction train을 보유한 Ras Laffan 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음
초기 정보에 따르면 최소 2개의 liquefaction train이 손상되었으며, 생산 재개 및 수리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
QatarEnergy는 생산 중단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으며, 연간 126 MTPA 규모로 확장을 노리던 North Field Expansion 프로젝트도 지연이 불가피
카타르의 거대 신조 프로젝트로 발주된 128척 중 2026년 20척, 2027년 27척이 인도될 예정이나 생산 차질로 인해 이 물량들이 용선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큼
이미 최소 41척이 인도된 상황에서 QatarEnergy가 이 선박들을 relet(재용선)으로 내놓거나 선주들에게 인도 시기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카타르 선단은 전 세계 LNG 선박량의 약 16%를 차지하며, 잔고 포함 시 20%까지 상승
중동 분쟁 이전에도 LNG선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Long) 상태였으나,
카타르발 수출 물량 증발로 인해 선박 공급 과잉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최근 QatarEnergy 소속 선박 중 최소 10척이 이미 relet 시장에 매물로 나옴
QatarEnergy와 ExxonMobil의 미국 Golden Pass LNG 터미널이 가동 1단계에 있어 일부 톤수를 흡수할 수 있으나 가동 속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필요
카타르와 UAE의 2025년 수출 물량 중 85%가 아시아 구매자였었던 만큼, 공급 중단 장기화 시 아시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예상
유럽 가스 가격은 시설 타격 보고 직후 약 30% 급등하며 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을 반영



다올 선박

2026.03.22 [814호]

DAOL 다올투자증권

▲ Seapeak, 노후 스팀터빈 LNG선 매각 및 선대 재편

140.5k-CBM급 스팀터빈 LNG선 Seapeak Jupiter(2002년 인도)를 14.9백만달러에 매각
해당 선박은 작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계류되었던 3척 중 1번째 선박으로, 향후 추가 운항을 위해 매각된 것으로 파악
용선을 찾지 못한 138k-CBM급 Seapeak Mars(2004년 인도)와 Seapeak Asia(2003년 인도)는 재활동용을 위해 매각됨
Seapeak Asia는 12.1백만달러에 매각되어 3.8백만달러의 손실을 기록
Seapeak Mars는 2026년 1월 현금 매수자에게 12.1백만달러에 매각
선원 퇴직금 등 관련 구조조정 비용으로 2025년 중 21.9백만달러를 인식
카타르 RasGas II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던 149k-CBM급 Al Marrouna(2006년 인도) 등 스팀터빈선 3척의 20년 장기 용선이 2026년 10월에서 2027년 2월 사이 종료될 예정이었음
Seapeak는 해당 선박들의 내용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고 2025년 말 60.1백만달러의 감액 손실을 반영
적절한 용선을 찾지 못할 경우 이 선박들도 매각될 것으로 예상
스팀터빈 LNG선은 수요 약세로 인해 기록적인 수의 선박이 비가동 상태이며,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음
LNG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선박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26년 이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
한편, Seapeak는 2025년 12월 총 511.6백만달러 규모의 LNG선 2척을 신조 발주했으며,
2028년 인도 시점에 맞춰 미국 수출업자와 10년 고정 용선 계약을 확보
2025년 순이익 26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95.8백만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
12월 말 기준 LNG 선대는 건조 중인 7척을 포함하여 총 51척이며, 가스선 선대는 신조 잔고 8척을 포함하여 총 42척을 보유
☞ 스팀터빈 LNG선 해체는 계속 됩니다.

▲ 말레이시아 MISC, 스팀터빈 LNG선 3척 스크랩 결정

말레이시아 선주 MISC가 2025년 말 매물로 내놓았던 스팀터빈 LNG선 3척을 폐선하기로 결정
현금 구매자가 137k-CBM Puteri Firus Satu, Puteri Zamrud Satu(2004년 건조) 및 137k-CBM Puteri Mutiara Satu(2005년 건조)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적당 매각 가격은 '현상인도(as-is)' 조건으로 1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준
해당 선박들은 현재 말레이시아 인근에 계류 중이며, 3월 전 인도 가능
MISC 회장 Zahid Osman은 현대식 선박에 대한 업계 선호도로 인해 스팀터빈 선박의 용선료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MISC는 2025년에도 130k-CBM Puteri Delima, Puteri Nilam(1995년 건조) 2척을 폐선 매각하는 등 선대 개편을 진행 중
이번 매각으로 2026년 현재까지 폐선된 LNG선은 총 4척으로 늘어남(1월에 폐선된 138k-CBM Seapeak Mars 포함)
2025년에는 총 15척의 LNG선(모두 스팀터빈 선박)이 재활동을 위해 매각한 바 있음
중개인들은 저운임 환경과 선박 유흥화 영향으로 2026년에 약 20척의 LNG선이 추가 폐선될 것으로 예상
현재 중동 분쟁으로 인해 스팀터빈 LNG선 운임이 45,000달러/일에서 50,000달러/일 수준으로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현대식 선박으로의 교체가 가속화될 전망
전 세계 LNG 선대 중 스팀터빈 선박은 약 200척이며, 그중 82척이 25년 이상 된 노후 선박
Braemar LNG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약 24척의 선박이 폐선 등을 통해 선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

▶ 러시아의 LNG선 드론 공격 반증

러시아가 서방 제재 대상인 138k-CBM Arctic Metagaz(2003년 건조)에 대한 드론 공격을 '여허구니없는 사건'으로 규정하며 IMO의 주의를 촉구
러시아는 2026년 3월 3일 지중해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이 환경 재앙을 유발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주장
3월 18~20일 열리는 IMO 특별 세션에서 중동 분쟁 지역 외 발트해, 지중해, 흑해 등 전 세계적 선박 공격에 대한 새로운 의제 설정을 요구
공격 당시 Arctic Metagaz는 몰타 동남쪽 168해리 지점에서 수상 및 공중 드론에 피격되었으며, 100k-CBM LNG와 700톤의 연료유를 적재 중
러시아 선원 30명 전원이 불타는 선박에서 탈출했으며, 이 중 2명은 화상으로 병원 이송 후 본국으로 송환
현재 선체 양쪽에 구멍이 나고 불에 탄 채 지중해를 표류 중인 해당 선박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변국들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박과 적재 화물 모두 서방 당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과 잠재적 폭발 위험이 있는 화물 상태로 인해 구난 작업 협의가 복잡해진 상황
러시아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방치할 경우 상업적 항해에 대한 무장 공격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선박 압류 행위를 비판하며, 선원들의 안전과 글로벌 해운 위기 상황을 개별 지역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FLEX LNG, BP와 LNG선 2척 용선 연장 계약 체결

FLEX LNG는 173.4k-CBM급 FLEX Courageous(2019년 인도) 및 FLEX Resolute(2020년 인도) 2척에 대해 용선주로부터 옵션 행사를 통보받음
영국 BP는 기존 정기 용선 계약에 따라 두 선박에 대해 730일의 추가 연장 옵션을 행사
이번 연장에 따라 두 선박은 2027년 1분기부터 2029년 1분기까지 추가로 투입. 전체 확정 계약 기간은 최소 2032년까지 확보
BP는 2032년 이후에도 선박당 최대 7년의 추가 연장 옵션을 보유 중
기존 보고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의 초기 3년 확정 용선료는 80,000달러/일 후반 수준이었으며, 최근 1년 용선 시장가는 90,000달러/일 수준
FLEX LNG의 확정 계약 잔고는 현재 53년. 용선주들이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대 74년까지 늘어날 수 있음
173.4k-CBM급 FLEX Constellation은 지난 3월 일본 JERA와 15년 장기 용선 계약을 시작하여 최소 2041년까지 확정 계약 상태
뉴욕 상장사인 FLEX LNG는 174k-CBM급 FLEX Aurora를 현재 용선처로부터 3월 중 반환받을 예정
FLEX LNG는 현재 스팟 시장에서 운용 중인 FLEX Artemis(173.4k-CBM)와 FLEX Volunteer(174k-CBM)를 포함해 총 3척의 오픈 선박을 보유하게 됨
이란 분쟁 발생 직후 LNG 스팟 요금은 300,000달러/일 수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200,000달러/일 미만으로 다소 조정
CEO는 중동 지역의 LNG 수출 재개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 등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

▶ EU의 러시아산 LNG 금지 조치와 Dynagas LNG Partners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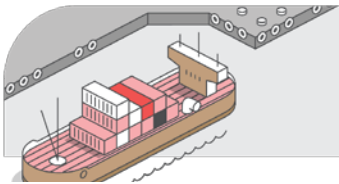
Dynagas LNG Partners는 EU의 러시아산 LNG 운송 금지 조치로 인해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선박 2척의 수입을 상실 위기에 처함
대상 선박은 155k-CBM 급 Yenisei River와 Lena River(2013년 인도)이며, 각각 2033년과 2034년까지 싱가포르 소재 Yamal Trade와 장기 용선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해당 선박들은 용선 시작 이후 러시아산 LNG를 전 세계로 운송해 왔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EU 규정에 따라 러시아산 LNG 운송이 제한
사측은 EU의 새로운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용선주와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이행 거부, 조기 종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채 약정 위반(Default)으로 이어질 위험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전면 금지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장기 계약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 조치가 적용
149.7k-CBM 급 Clean Energy(2007년 인도)는 올해 4월 SEFE와의 계약 종료 후, NextDecade의 Rio Grande LNG와 기존보다 높은 용선료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할 예정
중동 분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측 선대는 전향 장기 계약되어 있어 단기 시장 변화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
2025년 순이익은 6,170만달러로 전년(5,160만달러) 대비 증가했으나, 연간 매출은 약 1억 5,660만달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 러시아 Arc7 LNG선 건조 현황, 2호선 시운전

Zvezda의 2번째 러시아산 해빙 LNG선 Konstantin Posyet이 해상 시운전 시작
해당 선박은 당초 인도 예정이었던 Sergei Witte와 Pyotr Stolypin을 앞질러 시운전에 나섬
Konstantin Posyet은 172.6k-CBM 규모로, 선체 이동 전 한국 삼성중공업에서 멤브레인형 화물창 설치를 완료한 상태
화물창이 미장착된 채 도착한 다른 선체들과 달리 조기 완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
삼성중공업은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위한 Arc7 LNG선 15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싱가포르에서 중재 절차 진행 중
Arctic LNG 2 프로젝트는 수출 확대를 위해 전용 선박 확보가 시급한 상황
현재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는 제재로 인해 인도되지 못한 Arc7 LNG선 6척이 계류 중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N/A



▶ 컨테이너선

▲ HD현대중공업, HMM으로부터 피더 컨테이너선 10척 수주

HD한국조선해양은 아시아 소재 선사와 약 550백만달러(8,237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2,800-TEU이며, 2028년 하반기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55백만달러 수준 이번 계약은 HMM의 올해 2번째 피더 컨테이너선 발주이며, 지난 1월에는 중국 Huanghai Shipbuilding에 3,000-TEU 7척과 1,800-TEU 5척을 발주한 바 있음 또한 HMM은 HD현대와 한화오션에서 12척의 LNG D/F 대형 컨테이너선, 3척의 메탄올 연료 중형 컨테이너선을 건조 중 HD현대는 13,400-TEU 8척과 8,550-TEU 3척을, 한화오션은 13,000-TEU 4척을 담당 HMM의 2025년 4분기 순이익은 약 250백만달러(3,64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매출은 약 2.7조 원을 기록 HMM은 신조 컨테이너선 인도로 인한 공급 과잉을 경고하며,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 확대 및 저탄소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 현재 HMM은 Alphaliner 기존 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로 1,000k-TEU 이상의 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Premier Alliance의 일원 한편, 한국의 동원그룹이 약 68억달러 규모의 HMM 인수를 재검토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도

▶ 탱커

▲ HD현대중공업, Hafnia의 MR PC선 4척 수주

BW Group의 지원을 받는 Hafnia가 HD현대중공업에 4척의 MR PC선 발주 HD현대미포 2척, 현대베트남조선 2척씩 나눠서 건조할 예정이며 50k-DWT 급의 컨베이어널 연료 추진 방식, 2028년 인도 예정의 신조선가는 50백만달러 Hafnia는 더 많은 MR PC선 확보를 위해 중국 조선소들과도 '수 척'의 신조 논의를 진행 중 국영 조선소인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GSI)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 GSI는 최근 Hafnia와 프랑스 Socatra의 합작사인 Ecomar Shipholding에 메탄올 D/F MR PC선 4척을 인도한 바 있음 Hafnia는 자산 가치 상승을 활용해 작년 4척, 올해 현재까지 9척의 탱커를 매각하며 선대를 재편 중 최근 Panamax 3척, Handysize 4척, MR 2척 매각을 통해 총 225백만달러를 확보 Hafnia는 Torm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업계 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Mikael Skov CEO는 기업 규모가 50억~60억달러 수준일 때 시클리컬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

△ MSC의 장금상선 지분 50% 인수 공식화

Gianluigi Aponte가 이끄는 MSC의 자회사 SAS Shipping Agencies Services가 장금상선의 지분 50%를 인수할 계획임이 키프로스 경쟁 당국의 통지서를 통해 확인 이번 거래를 위한 프레임워크 투자 협약은 2026년 2월 2일에 체결되었으며, 2월 26일 공식 통지 MSC와 시노코(장금상선) 연합은 최근 몇 달간 VLCC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입과 용선을 진행하며 spot 시장 점유율의 20%~25%를 장악 이들은 소유 선박, 용선 및 신조선을 포함하여 최대 150척에 달하는 선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 지난 2월에는 그리스 Dynacom으로부터 VLCC 11척을 추가로 매입하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함 시노코(장금상선)는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매입을 시작하여 1월까지 35척의 탱커에 2.5십억달러 이상을 지출 3월 기준으로는 최소 60척의 선박에 대해 총 3.3십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 VesselsValue에 따르면 장금상선이 보유한 벌크, LNG선,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한 전체 선대 가치는 9십억달러 이상으로 평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가 VLCC 시장 운임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로 분석 새로 매입한 선박 중 31척은 "Haut Brion"이라는 명칭의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 Gianluigi Aponte의 사촌인 Mario Aponte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MSC의 전체 선대 가치는 약 52십억달러에 달하며, Gianluigi Aponte는 손자산 36.8십억달러로 세계 57위의 부호로 등재 팬데믹 기간 AP Moller-Maersk를 제치고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로 올라선 데 이어 탱커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Okeanis Eco Tankers의 VLCC 사상 2번째 높은 751,615달러/일 성약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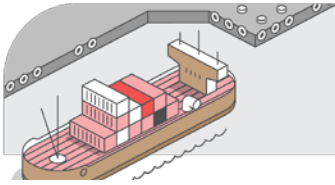
318.7k-DWT Nissos Donoussa(2019년 인도)의 Trafigura항 spot 성약이 최종 실패 해당 계약은 751,615달러/일 수준으로 역사상 2번째로 높은 운임이었음 이달 초 318k-DWT Kalamos(2010년 인도)가 777,000달러/일 이상의 역사적 최고 운임을 기록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Yanbu 항구로 원유 송유를 시작하며 인도항 선박들의 운임이 폭등 Minerva Marine의 317.1k-DWT Pantanassa(2011년 인도)는 GS Caltex와의 429,000달러/일 계약이 무산된 후, 며칠 뒤 S-Oil과 555,000달러/일로 재성약 Romy Lines 소속 298.5k-DWT Tejas(2006년 인도)의 422,646달러/일 Mangalore Refinery항 계약도 실패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량이 급감하며 중동발 중국행 노선에 대한 브로커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한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오만 내 선적은 유지되고 있으나, 중동 겔프발 화물은 거의 차단된 상태 대서양 분지 및 동남아시아로부터의 대체 물량이 유입 중이나 Brent유 가격 100달러/일 돌파를 막기에는 부족함

△ NAT는 Suezmax 중고선 매각. 대한조선에서 2척 건조 중

Nordic American Tankers(NAT), 2005년 건조된 노후 Suezmax 1척을 약 40백만달러에 매각 해당 선가는 시장 가치 대비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이며, 선박명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159k-DWT Nordic Freedom 또는 Nordic Skier로 추정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150k-DWT Nordic Pollux를 25백만달러에 매각한 데 이은 선대 갱신 전략의 일환 2025년 이후 현재까지 총 6척의 매각이 기록되었으며, NAT는 향후 2~3척을 추가 매입하고 2~3척을 매각할 계획 또한 선대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DH조선에 탱커 2척을 건조 중이며, 2028년 인도 예정 CEO Herbjorn Hansson은 NAT가 매우 견고한 위치에 있으며 향후 선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25년 4분기 이익은 11.7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3백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승 직전 분기 2.8백만달러 손실을 극복하고 실적 반등에 성공. 수익성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VLCC 운임 조정 멈추고, 반등. 그러나 주요 성약 취소 중

3월 16일 월요일, VLCC 운임이 270,000달러/일 수준으로 반등 Baltic Exchange 패널들은 스팟 수익을 지난 목요일 약 196,000달러/일에서 월요일 272,000달러/일 이상으로 평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시킨 중동 전쟁 영향으로 3월 2일 Baltic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약 319,000달러/일에 도달한 바 있음 최근 운임 상승은 Petronas가 320k-DWT DHT Opal(2012년 건조)을 용선했다는 보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Petronas는 미국 복합기업인 Koch Industries 계열사와 약 279,000달러/일 수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성약이 무산 DHT Holdings 소유의 DHT Opal은 스크러버가 장착되어 저렴한 고유황유 사용이 가능하며, 왕복 항해 기준 수익은 약 398,000달러/일로 추정 해당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인 홍해 파이프라인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원유를 운송할 계획이었음 지난 금요일에도 한국항 홍해-아시아 노선에서 스크러버 장착 선박이 왕복 기준 420,000달러/일에 성약되었으나, 이 또한 취소된 것으로 보고



▶ 오프쇼어/디펜스

▲ ENI의 6MTPA, 세계 최대 규모 FLNG 도입 추진

Eni는 용량이 6 MTPA에 달하는 거대 FLNG 선박을 배치할 계획
이는 현재 세계 최대인 Shell의 Prelude 및 Eni의 Coral Nord(각 3.6 MTPA)보다 약 2/3가량 더 큰 규모
최근 시장에 의향서(EOI)를 발행하여 6 MTPA급 설비 제공이 가능한 컨소시엄을 파악 중이며, 응답 기한은 올해 3월 말까지
Eni 측은 신조 FLNG의 단위 비용이 현재 육상 액화 플랜트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
모잠비크 Offshore Area 4 내 Mamba 복합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Eni는 이미 모잠비크에서 Coral Su(3.4 MTPA)를 운영 중이며, Coral Nord(3.6 MTPA) 도입도 확정된 상태
아르헨티나에서도 Eni는 YPF, XRG(Adnoc 계열)와 협력하여 Vaca Muerta 셰일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3척의 6 MTPA급 FLNG 설치를 검토 중
아르헨티나 프로젝트는 가스를 육상에서 전처리한 후 해상에서 액화만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
Eni는 콩고-브라자빌에서도 용량 0.6 MTPA의 Tango와 최근 가동을 시작한 2.4 MTPA 규모의 Ngoya를 운영 중
모잠비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ExxonMobil, CNPC International 등 Area 4 파트너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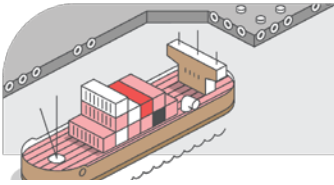
▲ Eni, 6MTPA 신규 FLNG 투입처. 모잠비크와 남미 베네수엘라. 2개 추가 사업 진행 중

이탈리아 메이저 Eni는 현재 콩고 및 모잠비크에서 4기의 FLNG를 운영 중이며,
아르헨티나에 6 MTPA의 메가 유닛 2기 추가 투입 예정
그런데, 모잠비크 Area 4 프로젝트를 위해 6 MTPA 규모의 3번째 FLNG 건조를 위해 시공사들과 접촉 중임이 확인
2026년 3월 19일에 2030년 이후 도입 목표로 2기의 FLNG 유닛 추가할 것으로 밝힘
신규 식별된 유닛 중 하나는 모잠비크 3번째 유닛이며,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 Perla 필드에 투입될 3.5 MTPA 규모의 액화 설비
베네수엘라 프로젝트는 최근 Delcy Rodríguez 대령 대통령과 Repsol 및 Eni 간 체결된 전략적 합의에 따라 가스 수출이 허용되면서 가시화
Perla 필드는 2015년부터 가동된 거대 저류층으로, 현재 생산량은 580 million cubic feet/일 수준에 불과해 확장 잠재력이 매우 큼
Eni 추산 Perla 필드의 가용 자원량은 2.8십억BOE(약 16.8 Tcf)로, 3.5 MTPA급 FLNG 2기를 수용할 수 있는 모잠비크 Coral 필드보다 큰 규모

▲ ABADI LNG 프로젝트 개발 박차

인도네시아 정부는 Inpex가 운영하는 Abadi LNG 프로젝트에 국부펀드 Danantara를 잠재적 가스 구매자로 제안
Abadi LNG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206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및 동남아시아 에너지 안보의 핵심 가스 공급원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4월 말까지 확실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Danantara가 다운스트림 프로그램을 위한 가스 구매를 제안할 수 있다고 밝힘
Danantara는 올해 초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1단계 투자에 20십억달러를 할당할 바 있음
Inpex는 현재 잠재적 구매자들과 논의 중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LNG는 미국이나 카타르산에 비해 운송 거리가 짧아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
해당 프로젝트는 하루 150백만 입방피트의 파이프라인 가스를 현지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
인도네시아 Upstream 규제 기관 SKK Migas는 Osaka Gas, Kyushu Electric Power, Shell Trading, BP Trading, Chevron Trading 등 5개 사를 잠재적 국제 구매 후보로 판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EPC 입찰을 위해 2026년 2분기 또는 늦어도 3분기까지 FEED 단계를 완료하기를 희망
운영사인 Inpex는 2027년 최종투자결정(FID)을 목표. SKK Migas는 올해 12월 내 프로젝트 승인을 기대
FEED 작업 중 SURF, 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CCS 부문은 Worley가 주도
FPSO FEED 경쟁은 Saipem-Tripatra-McDermott 컨소시엄과 Technip Energies-JGC 컨소시엄이 진행 중
육상 LNG 플랜트 FEED 경쟁은 JGC-Technip Energies 팀과 KBR-삼성E&A-Adhi Karya 팀 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Masela PSC 지분 구조는 운영사인 Inpex 65%, Pertamina 20%, Petronas 15%로 구성

[03월1주] △ Inpex, 200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Abadi LNG 프로젝트 입찰 개시



▽ 미국 USTR의 조선업 과잉 생산 조사 및 관세 부과 가능성, 한국과 일본도 포함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Jamieson Greer 대표는 관세 및 수수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 부문 조사 대상에 조선업을 포함 이번 조사는 '과잉 생산(excess capacity)'을 핵심으로 하며, 주요 타겟 국가로 조선 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이 거론됨 '과잉 생산'은 수요를 초과하는 제조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 작년 중국산 선박에 향한 수수료를 부과할 당시에도 사용된 개념 USTR 법률 고문 Jennifer Thornton은 이번 조사가 15개국 및 EU의 다양한 제조 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힘 조사 대상국 리스트에는 조선 국가인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히 한국과 중국의 조선 부문이 직접 언급 USTR 측은 구조적인 과잉 생산이 미국 내 공급망 재편 및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 이번 조사는 '301조 조사'로 불리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무역대표부가 관세나 수수료를 즉각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 달 전 백악관은 미국 외 지역에서 건조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음 중국 조선 및 해운업에 대한 301조 조사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더욱 본격화되는 양상 미국 제조업 연합(AAM)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조선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재도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 USTR은 이번 조사 제안에 대해 4월 15일까지 공청회 및 대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

▷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보안 연합체 구성 거부한 NATO 동맹국 명비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보안을 위한 연합체 구성 요청을 거부한 NATO 동맹국들을 강하게 비판 대부분의 NATO 동맹국이 미국의 대이란 캠페인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매년 수천억달러를 지불하며 보호해 주는 관계가 '일방통행'이라고 지적 미국이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NATO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 NATO뿐만 아니라 연합체 참여에 실패한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지칭하며,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독자 노선을 강조 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해상 보안 작전인 'Aspides'의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 Kevin Hassett는 'Operation Epic Fury'가 예정된 4~6주 일정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Hassett 국장은 탱커들이 다시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란의 저항 능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 미국 정부는 단기간 내에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매우 낙관하고 있음

△ 트럼프의 60일 기간 Jones Act 면제 조치에 대한 해운업계 비판

Donald Trump의 60일 기간 Jones Act 면제 조치에 대해 미국 국내 해운업계의 비판과 법적 대응 가능성 제기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목요일 659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면제 목록을 공식 발표 이번 면제는 Pete Hegseth 장관이 이끄는 Department of War(전 Department of Defense)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짐 현행법상 10일 이상의 면제는 '국방을 위한 적적 선박 부족' 및 '군사 작전에 미치는 즉각적인 악영향 해결'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Alice Colarossi 변호사는 60일이라는 면제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어 법적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 행정부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 Operation Epic Fury 수행을 위한 유류 시장 교란 완화 및 미군 기지 공급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움 Sean Pribyl 변호사는 행정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상당한 존중(Deference)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해상 노동조합 연합은 이번 조치가 전통적인 국가 안보 비상 상황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 선박들이 모두 고용된 상태인 현재 마켓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Standing)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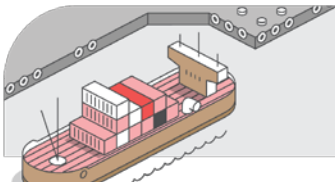
▶ 기타

△ 인도-이란, 에너지 운반선 안전 통행 협상

인도 당국은 공격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동쪽으로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 협상 대상은 최대 30척의 인도 국적선이며, 이 중 최소 22척이 에너지 관련 화물을 적재하고 있음 세부 선종으로는 LNG선 3척, LPG선 11척, 원유 운반선 8척이 포함 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직접 대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밝힘 인도 해군 호송 및 기타 조치들이 선박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준비 중 최근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소속 가스 운반선인 Shivalik과 Nanda Devi 2척이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인도에서 하역할 예정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로 인해 수출 화물의 물류, 경로 변경, 운송 시간 증가, 운임 상승 등의 운영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3월 11일, 이라크 바스라 인근에서 화물을 선적하던 Safesea Vishnu가 무인 드론 공격을 받아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인도 외에도 방글라데시 역시 이란 측에 자국 오일 및 가스 수입 선박의 안전 통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Goldsea International의 차별화된 중개 시장 공략 및 전략

Goldsea International 창립자 JJ Wang, 대형 선박 거래 위주의 메이저 중개업체와 달리 중소형 선주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틈새시장 공략 대형 중개업체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선주들에게 설계, 금융, 기술, 마케팅을 아우르는 '풀 서비스' 자문 제공 상해 소재 10여 개 선박 설계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선주들의 신조선 과정을 지원 대형 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 선주들을 위해 대안 금융원을 확보하여 조선소, 금융, 프로젝트 감독을 잇는 '원 체인' 프로세스 구축 강쑤성 타이저우 지역 등 중국 내 실력은 있으나 언어 장벽과 마케팅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은 민간 조선소들을 해외 구매자와 연결 안후이, 후베이, 후난성 등 양쯔강 유역 내륙 수로에 흩어진 수백 개의 소형 조선소들을 발굴하여 시장 격차 해소 해외 구매자들에게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며, 특히 수작업 비중이 높은 소형 선박 부문에 집중 창립자 JJ Wang은 삼성중공업 검사원 출신으로 Lloyd's Register, RBS, EA Gibson 등 기술과 금융 분야를 두루 거친 전문가 Goldsea International은 Clarksons나 SSY와 직접 경쟁하기보다, 대형 업체가 기피하는 20k-DWT 이하 소형 선박 시장에 주력 홍콩과 런던을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해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본토 시장을 연결하는 구조임 단순한 규모 확장보다는 중국인이 만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뢰도 높은 중개업체로서의 명성 확립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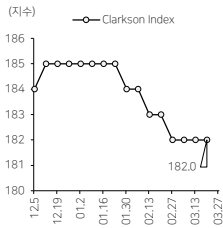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3.22 [8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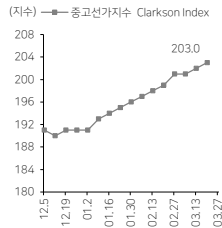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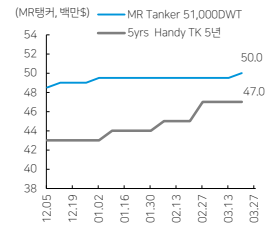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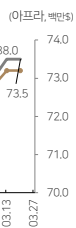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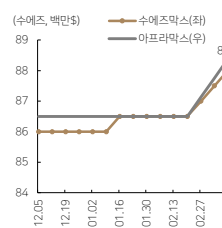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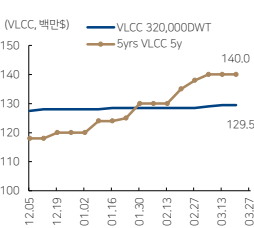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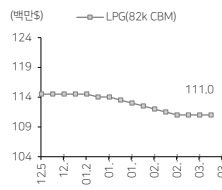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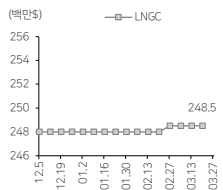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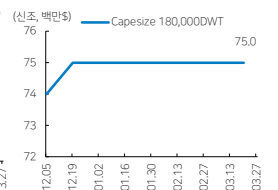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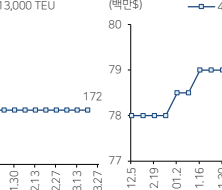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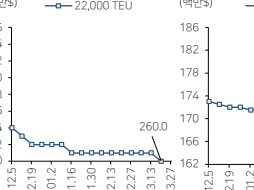
▶ 탱커



▶ 가스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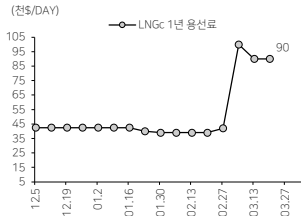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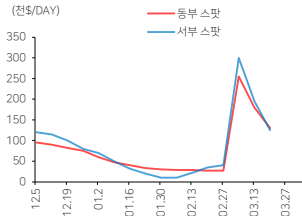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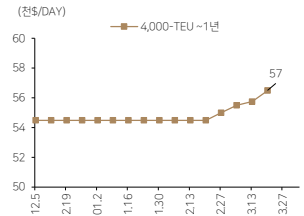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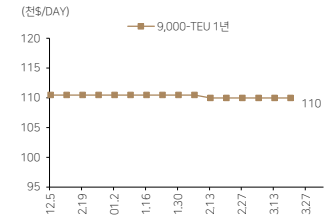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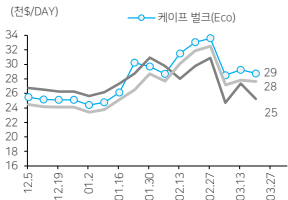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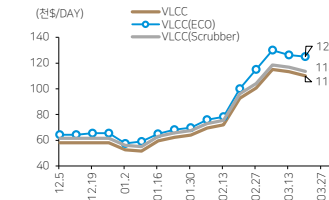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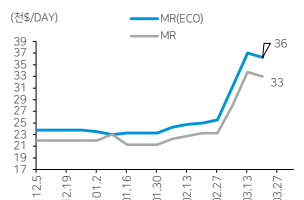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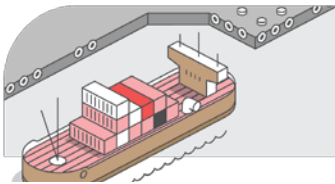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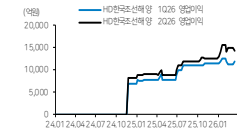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3.22 [8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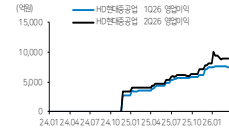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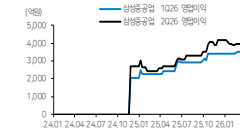
▶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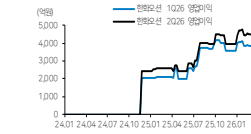
▶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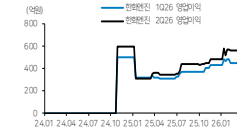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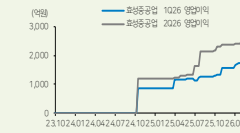
▶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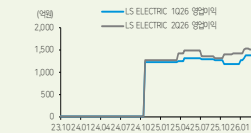
▶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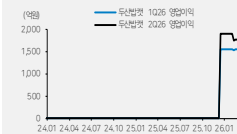
▶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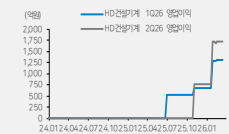
▶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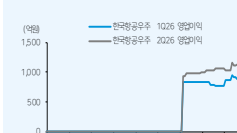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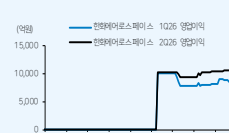
▶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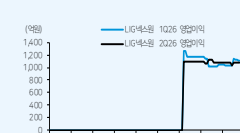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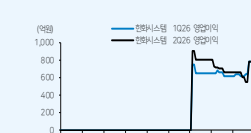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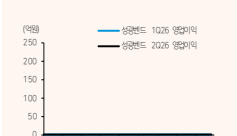
▶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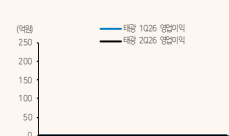
▶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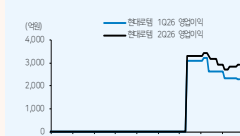
▶ 성광벤드



▶ 태광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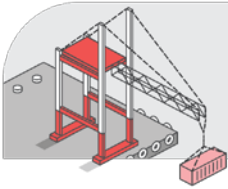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6 EPS(원)								Chang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2.21	26.02.28	26.03.07	26.03.14	26.03.20	2달전 대비	4주간 대비	2026 PER	증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44,414	46,721	47,628	48,546	49,723	49,052	49,052	49,052	48,632	0%	-2%	8.3	404,500
	HD현대중공업	21,863	24,108	20,813	25,582	25,836	25,772	25,772	25,638	25,638	0%	-1%	21.8	559,000
	삼성중공업	1,149	1,345	1,332	1,400	1,408	1,409	1,409	1,409	1,409	1%	0%	20.3	28,550
	한화오션	4,266	4,559	4,470	4,569	4,436	4,439	4,439	4,414	4,414	-3%	0%	29.2	129,100
엔진	한화엔진	1,710	1,832	1,758	1,778	2,048	2,048	2,048	2,048	2,076	17%	1%	23.6	49,050
	STX엔진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247	2,147	58%	33%	16.0	34,350
	HD현대다윈엔진	2,474	2,949	3,061	3,188	3,540	3,540	3,540	3,540	3,535	11%	0%	22.7	80,400
	HD건설기계	9,176	10,359	10,395	3,761	8,972	8,972	8,972	8,972	8,972	139%	0%	14.8	133,000
발전/중전기	두산밥캣	5,833	5,869	5,826	5,656	5,343	5,343	5,343	5,343	5,363	-5%	0%	11.8	63,100
	두산에너빌리티	801	680	595	625	576	607	607	579	553	-12%	-6%	198.3	109,600
	HD현대일렉트릭	23,445	25,950	26,268	26,202	27,259	27,259	27,201	27,201	27,203	4%	0%	35.3	959,000
	효성중공업	58,435	75,923	76,206	75,820	81,500	81,300	83,530	83,530	83,530	10%	2%	32.7	2,735,000
방산/기타	LS ELECTRIC	13,225	13,510	14,115	14,024	15,286	15,286	15,113	15,113	15,139	8%	-1%	58.5	886,000
	한국항공우주	3,993	3,803	3,764	3,820	3,852	3,811	3,801	3,826	3,826	0%	-1%	48.5	185,7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6,143	46,631	46,508	46,281	45,371	45,371	45,694	45,694	45,694	-1%	1%	28.9	1,320,000
	LIG넥스원	18,385	18,135	17,826	17,891	16,424	16,383	16,781	16,781	16,781	-6%	2%	39.4	661,000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1,548	1,541	1,541	1,543	1,542	1,719	1,644	1,567	1,567	2%	2%	86.8	136,000
	현대로템	9,546	9,987	9,883	9,608	8,959	8,959	8,975	8,960	8,960	-7%	0%	20.1	180,100
	현대엘리베이터	9,311	9,311	4,720	4,720	4,720	4,720	4,720	4,720	4,720	0%	0%	18.8	88,800
	성광벤드	2,095	2,088	2,308	2,308	1,800	1,800	1,800	1,657	1,638	-29%	-9%	22.7	37,200
태광	태광	1,970	2,048	2,068	1,925	2,219	2,214	2,214	2,214	2,108	10%	15%	16.9	35,700
	하이록코리아	4,555	4,555	4,555	4,393	4,393	4,393	4,393	4,393	4,393	0%	0%	8.6	38,000

그룹	종목	2026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2.21	26.02.28	26.03.07	26.03.14	26.03.20	2026	2027	2026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13,072	217,799	219,809	221,389	223,561	221,904	221,904	221,372	220,805	22%	24%	1.8	
	HD현대중공업	92,283	95,714	81,142	101,628	104,178	104,051	104,051	103,813	103,813	25%	27%	5.4	
	삼성중공업	7,475	7,503	7,490	7,569	7,567	7,560	7,560	7,560	7,560	19%	22%	3.8	
	한화오션	23,296	23,505	23,354	23,639	24,037	24,053	24,053	24,069	24,069	18%	21%	5.4	
엔진	한화엔진	6,317	6,317	7,372	7,372	7,372	7,372	7,372	7,372	7,372	28%	25%	6.7	
	STX엔진	10,191	10,191	10,191	10,191	10,191	10,191	10,191	10,748	10,748	20%	19%	6.7	
	HD현대다윈엔진	13,552	14,399	14,562	14,768	17,381	17,381	17,381	17,381	17,467	20%	24%	4.6	
	HD건설기계	111,930	112,926	113,305	40,995	94,613	94,613	94,613	94,613	94,613	9%	12%	1.4	
발전/중전기	두산밥캣	80,046	77,306	79,427	79,170	78,705	78,705	78,705	78,705	78,052	7%	8%	0.8	
	두산에너빌리티	13,405	12,929	12,697	12,775	12,641	12,681	12,681	12,650	12,632	4%	7%	8.7	
	HD현대일렉트릭	72,779	75,060	75,493	75,170	76,963	76,963	77,277	77,277	77,348	35%	38%	12.4	
	효성중공업	304,436	319,464	320,161	317,808	326,816	326,619	329,109	329,109	329,429	25%	30%	8.3	
방산/기타	LS ELECTRIC	78,075	78,155	78,797	78,526	79,961	79,961	79,927	79,927	80,124	19%	23%	11.1	
	한국항공우주	23,041	22,600	22,610	22,627	22,338	22,294	22,294	22,298	22,298	17%	22%	8.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3,740	215,231	215,374	213,216	232,378	232,378	232,378	232,901	232,901	20%	22%	5.7	
	LIG넥스원	81,945	76,454	75,423	75,111	77,750	77,654	78,143	78,143	78,143	21%	25%	8.5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16,766	18,781	18,781	18,532	17,544	15,253	15,253	15,180	15,180	10%	14%	9.0	
	현대로템	35,539	37,004	37,144	36,492	35,890	35,890	35,890	35,753	35,753	25%	30%	5.0	
	현대엘리베이터	42,842	42,842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15%	26%	2.9	
	성광벤드	23,201	23,070	23,255	23,255	22,776	22,776	22,776	22,569	24,051	7%	8%	1.5	
태광	태광	24,696	24,812	24,680	25,820	26,455	26,455	26,455	26,455	26,219	8%	9%	1.4	
	하이록코리아	43,975	43,975	43,975	41,221	41,221	41,221	41,221	41,221	41,221	11%	11%	0.9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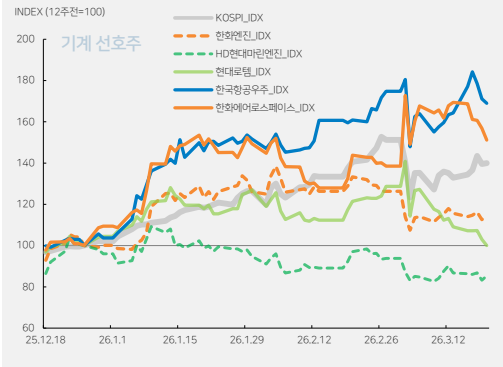
2026.03.22 [814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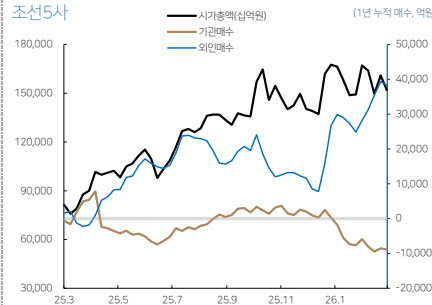
▶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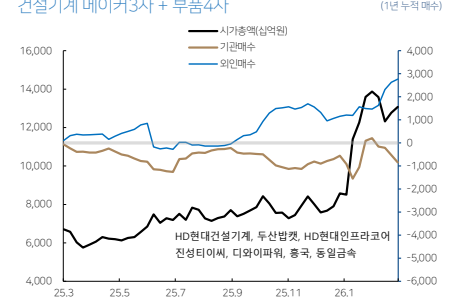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국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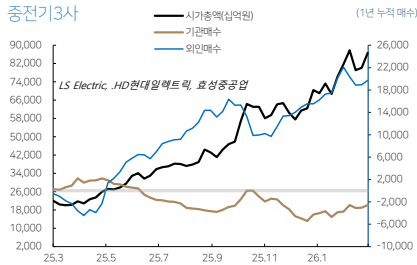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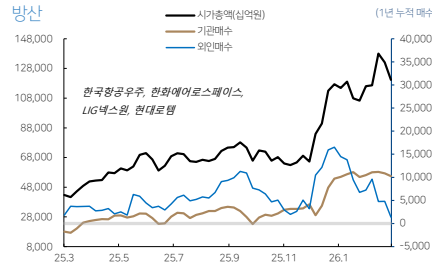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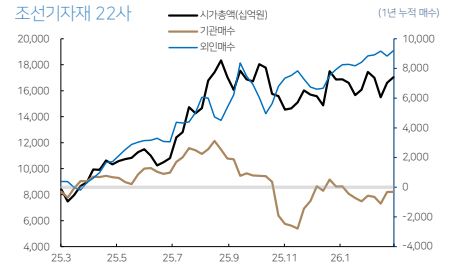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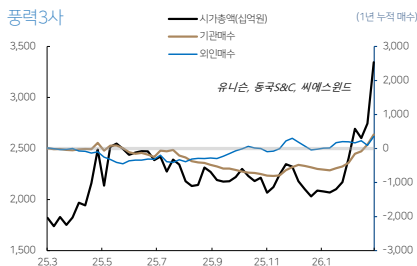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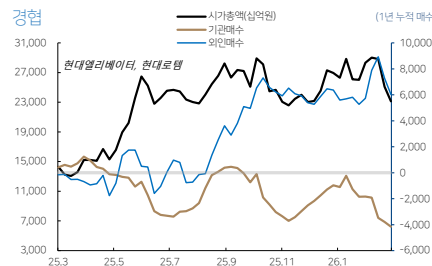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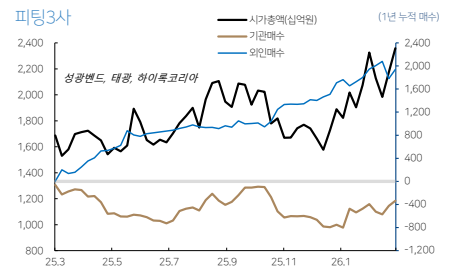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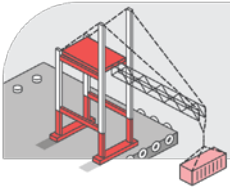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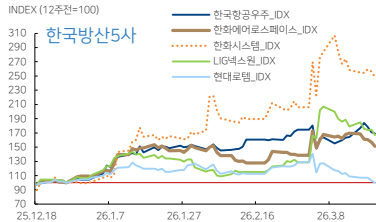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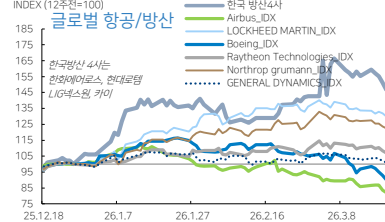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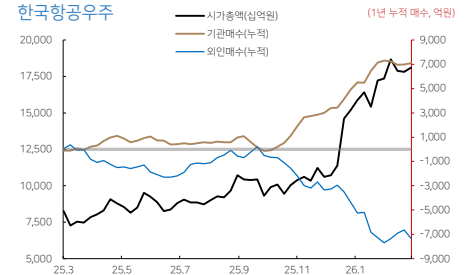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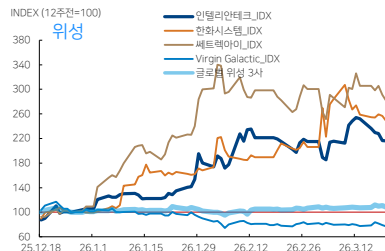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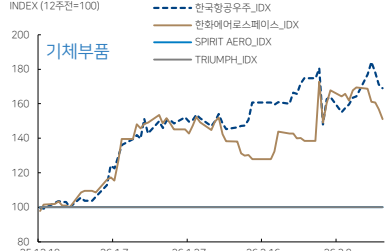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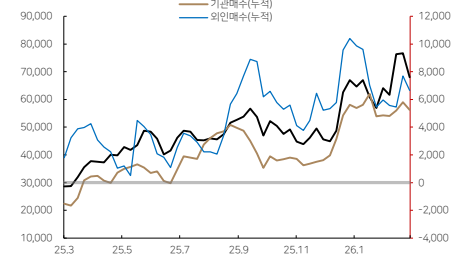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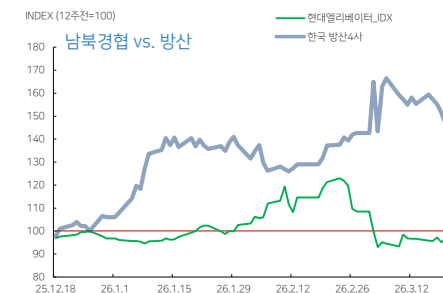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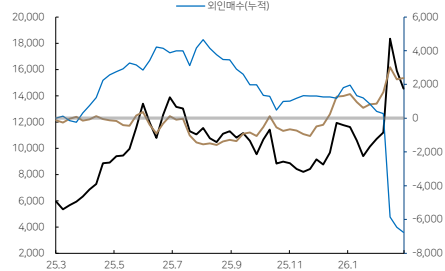
▶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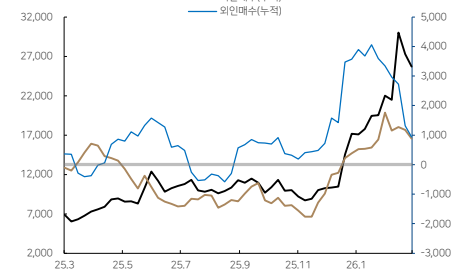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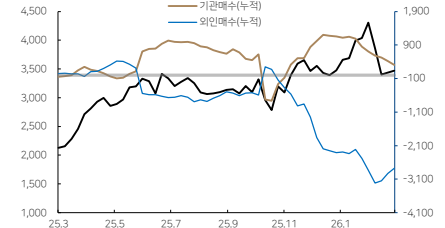
▶ L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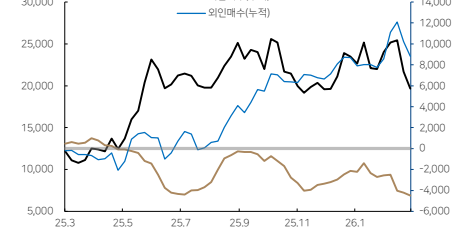
▶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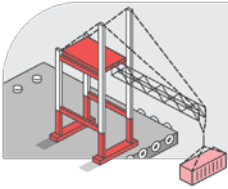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로템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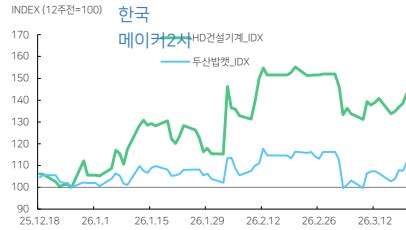
2026.03.22 [814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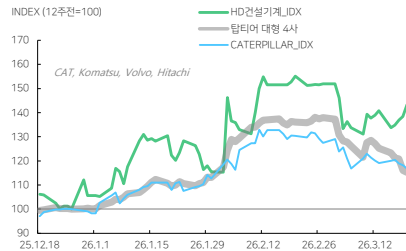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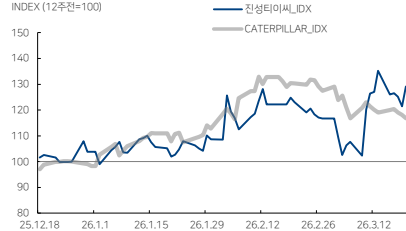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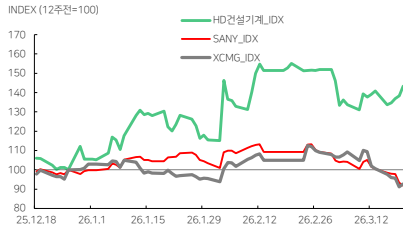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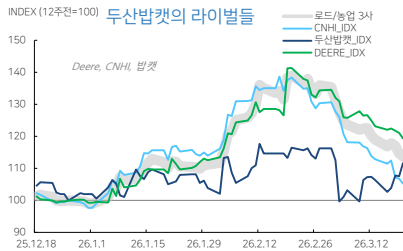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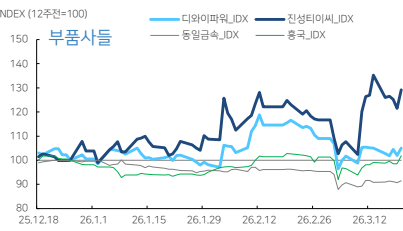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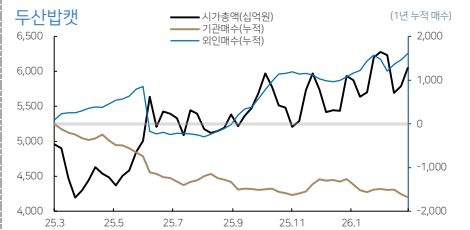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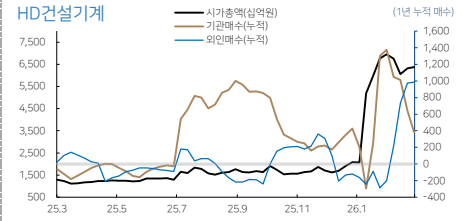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 부품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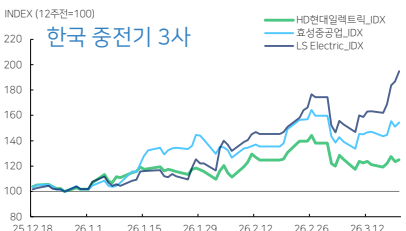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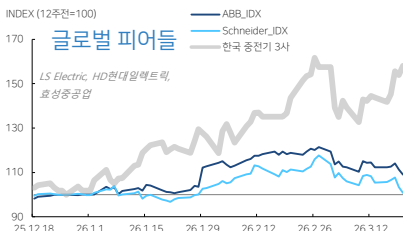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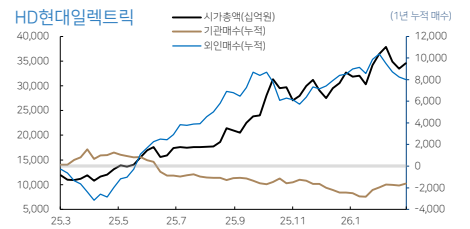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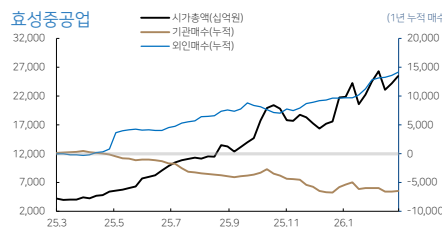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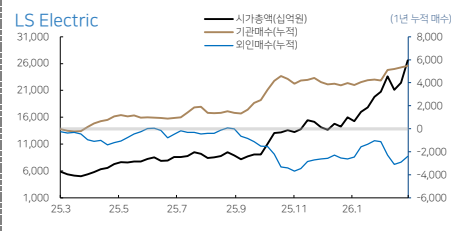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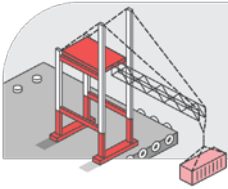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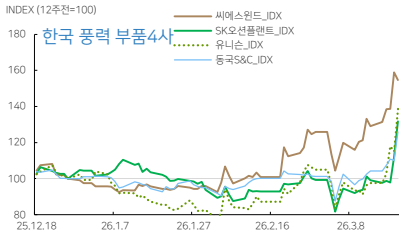
2026.03.22 [814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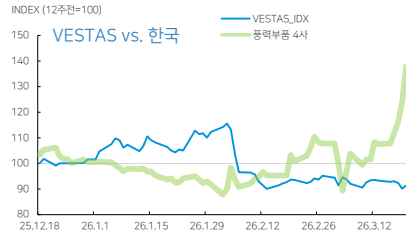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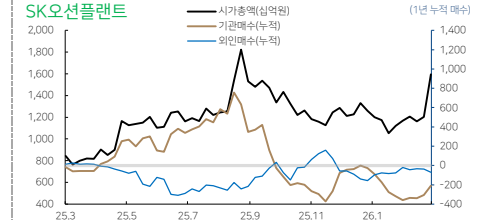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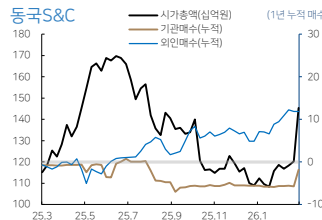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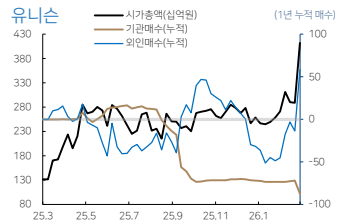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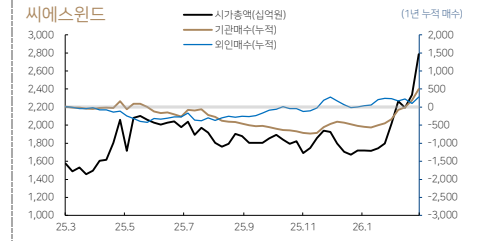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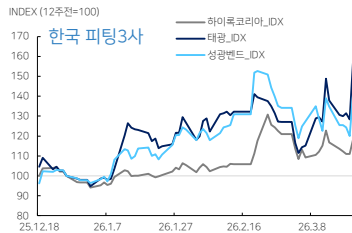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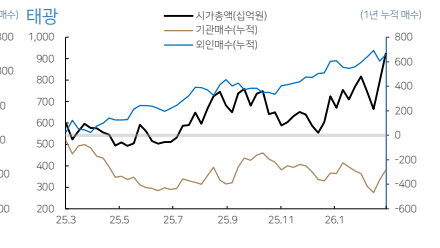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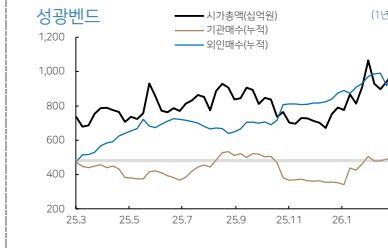


피팅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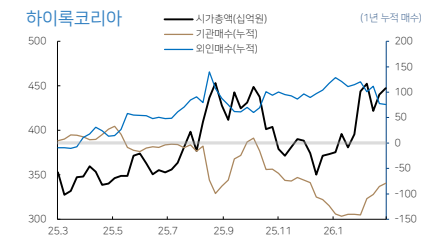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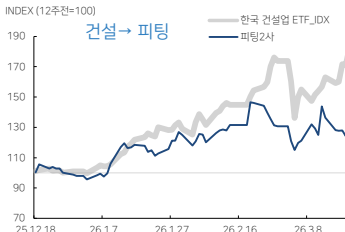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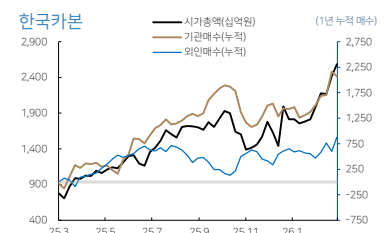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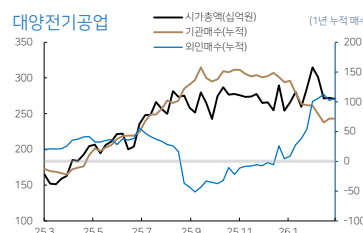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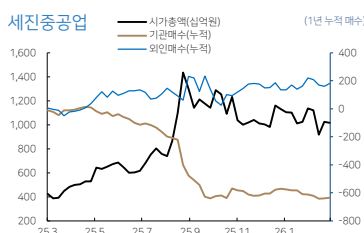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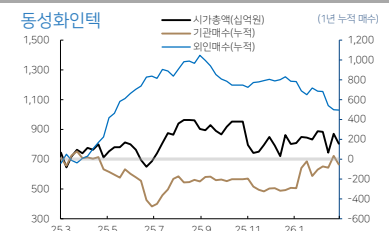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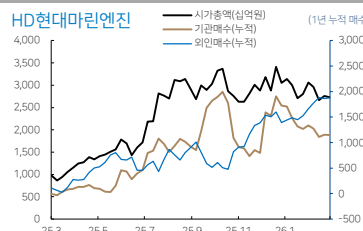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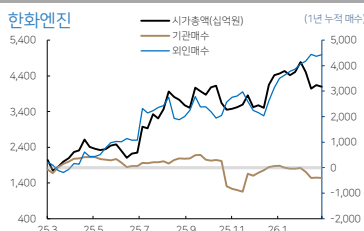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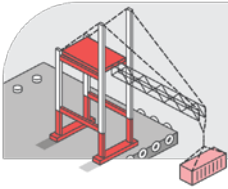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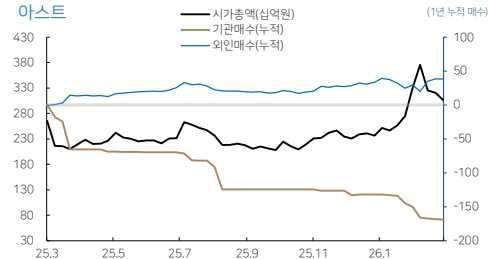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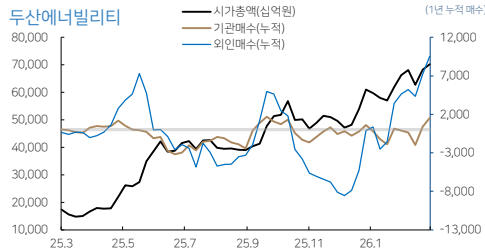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 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